

16:30-16:40

미국예방정책국특별위원회 (USPSTF)의 유방암 검진지침 개정안에 대한 대한유방검진의학회의 입장

가천의대 영상학과

최 혜 영

대한유방검진의학회는 최근 미국 정부의 질병예방특별위원회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가 발표한 유방촬영술 유방암 검진의 새로운 지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언론들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CBS, NBC, 뉴욕타임스 등은 40대 여성에서 유방검진을 위한 유방촬영술은 질병예방특별위원회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가 발표한 대로 필요가 없다고 인용하였으며 국내 언론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러한 보도가 일반 여성들, 의사들 및 유방검진전문가들에게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USPSTF의 발표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50대 여성에 비해 40대 여성에서 미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09년 11월호 논문을 근거로 한 것으로 50대 여성부터 2년마다 한번씩 유방촬영술을 하는 것이 좋으며 40대 여성에서는 위험인자가 없다면 유방촬영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지침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도 Mayo Clinic, MD Anderson 과 같은 우수한 의료 기관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이전 지침에 따라 유방암 검진을 시행할 것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실제로 암 검진을 주관하고 시행하는 대표적인 학회 및 단체 (American Cancer Society, National Cancer Institute,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등에서는 40대부터 유방촬영술 검진을 시작하도록 하는 현재의 권고안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발표하였다.

특히 미국영상의학회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는 이 연구가 실제 유방암 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의사의 참여없이 시행되어 결과의 오류가 있

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단체의 회장인 Carol H. Lee박사는 이 결과가 순전히 경제 논리로만 해석한 것이고 이로 인해 각종 보험기관에서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검사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지금까지 사망률 감소를 가져오고 있던 흐름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 5대암 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유방암 검진을 위해 40세 여성부터는 1-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도록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이 서구의 유방암 발생률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서구의 경우 40대 이후부터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중반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다가 50대 이후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40대와 50대 이상에서의 검진의 효과가 비슷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인에서는 40대부터 유방암 검진을 위한 유방촬영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발표된 새로운 지침은 현재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미 보건장관이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미국에서도 크게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발표된 이 새로운 지침은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우리나라에서 40대 여성에서의 유방촬영술이 필요 없는 검사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검진 지침을 다시 한 번 정립하기 위한 전국적인 대단위의 다기관 연구가 필요할 시점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특히, 유전적 특성과 생활습관이 다른 우리나라여성에게 미국의 검진권고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본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

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실시한 성과를 관련공공기관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과 관련학회(유방검진의학회, 유방영상의학회, 한국유

방암학회)가 공동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방암검진권
고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때이다.